2009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요강

81개 대학서 1만1,740명 선발

작년보다 2,400여명 줄어…내달 14일부터 10일간 원서 접수

2009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는 지난해에 비해 '좁은 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의 나머지 고교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작용 때문에 올해를 마지막으로 수시 1학기 전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7일 발표한 '2009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총 1만1천740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456명이 감소했고 학교 수도 81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 줄었다. 본격적인 전형은 다음달 14일 실시된다.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올해 수시 1학기에서는 81개 대학에서 총 1만1천740명(전체 모집인원의 3.10%)의 신입생을 뽑는다. 대학 설립 형태별로는 국·공립대학이 7개교(966명), 사립대학이 74개교(1만774명)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7월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이며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학교별로 7월24일~8월31일 중 이뤄진다. 합격자 등록기간은 9월1~2일 이틀 간이다.

◇**전형유형 및 요소**=전형 유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52개교(5천64명),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70개교(6천676명)이다.

특별전형을 세분하면 특기자전형으로 7개 대학이 86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으로 40개 대학이 2천957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로 농어촌학생전형(33개교),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40개교), 특수교육대상자전형(2개교), 재외국민·외국인전형(7개교) 등을 실시한다.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2개 대학(경주대, 한중대)에서 5명을 선발한다.

수시 1학기 모집의 주요 전형요소는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구술고사, 실기고사 등을 활용하며 학생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성적까지만 반영된다. 일반전형에서는 학생부만 100% 활용하는 대학이 31개교, 학생부와 면접·구술을 병행하는 대학이 21개교, 학생부와 면접 및 기타요소를 활용하는 대학이 1개교다.

◇**수험생 유의사항**=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에서 복수지원도 할 수 있다.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수시1학기 모집 대학에 복수로 합격했을 경우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를 포함해 예비합격 후보자 중 대학에서 결원에 대한 충원 통보시 본인이 등록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며, 예비합격 후보자 중 본인이 등록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는 합격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시 1학기 예비합격 후보자 중 본인이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시 2학기 또는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시 1학기 주요 대학 모집인원

지역	대학명	인원(명)	학생부 반영비율(%)
광주·전남	목포대	194	100
	광주대	165	100
	광주여대	111	50
	남부대	92	37.5
	대불대	148	100
	동신대	193	100
	호남대	209	100
	호남신학대	17	36.36
수도권	건국대(충주)	150	
	건국대(서울)	90	
	고려대(서울)	125	
	단국대(천안)	291	30
	동국대(경주)	191	94.12
	연세대(서울)	117	
	중앙대(서울)	30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 모의평가서도 복수 정답 작년 수능 이어…평가원 신뢰 추락

복수정답 인정 파문을 일으켰던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지난 4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출제 오류가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수리영역 나형의 28번 문제의 경우 원래 발표한 정답 ④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리 나형 28번 문제는자연수 n의 양의 약수를 찾아 (-1)의 거듭제곱으로 만든 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4일 모의평가가 치러진 이후 수험생들과 일부 학원 관계자들이 정답이 ④번이 아니라 ①번이라고 주장하며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했었다.

평가원이 이처럼 올해 또 다시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문항을 출제하는 오류를 드러냄으로써 평가원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지난해 본 수능에서도 채점까지 끝난 상황에서 물리 II 과목 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천여명의 학생의 등급이 바뀌는 등 혼란을 야기했으며 결국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등 파문을 겪었다. /연합뉴스

노인건강타운 현장 점검 민생과 주요 사업 현장 검검에 나선 박광태 광주시장이 17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을 방문해 안전·견실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이 공사는 대도개발 등 4개사가 시공중이며 공정율이 81%로 오는 9월30일 완공될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조 6천억 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광주·전남 연합전선 편다

정부 선정 요건 확정…19일 실무진 만나 방안 논의

2010년까지 5조6천억원을 투입해 설립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선정 요건이 확정되고 입지 선정 시점도 올 하반기로 임박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권역별 연합전선을 펼쳐온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북과 달리 개별적으로 유치를 추진해온 광주시와 전남도도 공조 방안 찾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기준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가결,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지 선정 기준은 ▲연구인력,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 완비 여부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숫자 및 집적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지자체의 제도적·물적 지원 수준 ▲국토균형 발전 기여도 등 6가지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와 지원 기구를 구성, 하반기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 단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주·전남·대전·충북·대구·경북·인천 등 10여개. 광주시는 전국 유일의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계획 등을 기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유치기획단을 꾸려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전남도도 화순 생물산업연구센터, 전남대 화순병원 등과 연계해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북 등 지자체들이 권역별로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맞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19일께 실무진들이 만나 연계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상 입지 중 하나로 제시된 혁신도시나 전남대 화순병원을 포함한 인프라를 하나로 모을 경우 유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7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현장을 방문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전국에서 하나뿐인 노인건강타운을 만든 것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로 계획중인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 대통령 공약인 국립노화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유치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또 노인건강타운 태스크 포스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